

조계종 비구니 목소리 커진다

교구총회 의석 20% 직할교구는 50%차지 포교·복지등 종무행정엔 '알뜰손' 기대

비구니 스님들의 교구총회 참여인원이 전체 교구총회의원의 약 20%인 2백40여명으로 밝혀져 교구총무행정엔 비구니 스님들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선거법상 제한을 두어 직선 비구니교구총회위원은 현재 없는 상태다. 그러나 교구총회 참여는 말사주지지의 당연직 참여뿐이어서 다소 아쉬움은 있으나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는 종무행정에서 상당부분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여져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제 1교구 조계사의 경우 교구위원의 50% 가까이 비구니 스님들이 차지하고 있다.

본사 중심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구성된 교

구총회는 인후보자 등록 현황에 보이듯 교계의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중앙 독점을 방지하고 향후 실시될 지방자치제와 보조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지역 불교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그동안 종무행정에서는 소외돼 왔지만 각 사찰·포교당에서 발군의 운영실적을 보여준 비구니스님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의회활동을 하느냐와 교구총회가 비구니 스님들의 능력을 어느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교구총무행정의 내실이 상당히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찰운영이나 유치원 복지관 등 포교뿐 아니라 교육, 복지 등 각 사찰에 쏟는 비구니 스님들의 열의와 능력은 평판이 나

을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진가를 발휘해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총무원이나 본사급 사찰의 주요 종무에 있어 아직도 제한받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차별 조항이 완전히 개선되고, 비구니 스님들 자체가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각성 단합한다면 비구니 스님들은 스스로의 권익을 찾을 수 있고 따라서 교구뿐 아니라 중앙 종무행정에의 참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종단의 한 비구니스님은 "비구니스님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권익을 찾고자 노력하고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비구니스님들의 권익과 활동을 확대하는 지름길"이라 지적했다. <이경숙 기자>

은 '생명가치를 생각하는 민초들의 모임'에서는 다음달 2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생명가치를 통한 지역경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3대사업 성취 3천배
민자 불교회 기원법회

민자당 불교신도회(회장 국정출판사)는 지난 12월 13일 양일간 문경 불교사에서 불교계 3대사업 성취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원법회에 앞서 민자 불교회소속 회원 21명은 회의를 갖고 △불교중앙병원 건립 △고려불화 복원 △이차돈 기념사업 등 3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날 3대사업 실천을 다짐하는 3천배기도를 13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승가대 세금부과 물의

성북세무서 교육출연금 기부금으로 해석

"형평 잃은 법 적용 납득안돼"

중앙승가대(학장 송산, 이하 '승가대')에 부당한 세금 부과와 물의를 빚고 있다.

같은 운영체제를 가진 포교당과 가톨릭 신학교들은 중앙승가대보다 더 오랜 역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설립 인가된 지 4년밖에 안된 승가대에만 유독 엄청난 세금이 부과돼 법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성북세무서는 승가대에 △출연부동산 2년 이내 미사용건으로 1천388만500원 △기부금 고유목적에 미사용 3천6백67만1천원 △출연재산상환세 등의 미제출로 9백29만6천449원 등 세액 총 5천6백만4천599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승가대는 △출연부동산 2년 이내 미사용에 대해서는 출연받은 경우 용강동 소재 약 4만5천평의 토지는 수익사업으로 관공수를 학교법인 원석학원에 90년4월부터 율불까지 계속 매매했다고 밝혔다. 또 조계종단에서 지원한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보아 상속세법 시행령에 의한 세금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단의 지원

금과 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학적과 교무와 총무과 등의 인건비로 교육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상속세법 기본정책 해당규정의 내용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했다는 것이 승가대측의 주장이다.

승가대는 조계종이 출연한 교육비는 종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세법에 의한 출연 재산 명세서 등의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도 잘못됐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가대는 이번 과세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실사를 성북세무서에 청구했으나 지난 9월 7일 기각당했다.

승가대는 이에 대해 불복, 국세심판소에 심판 청구를 해 놓은 상태이다.

승가대 사무처장 수완스님은 "조계종단 예산에 승가대 예산이 포함돼 있고 수계받은 종단 구성원인 학인들을 교육시키는 승가대에 지원금을 사화에 내는 기부금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지않고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가톨릭신학교들은 그런 세법이 있는 지조차 모를 정도라고 밝혔다. 즉 사립학교 기부금에 대한 상속세법 개정 후 중앙승가대에만 최초로 세금이 부과된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불교계에 대한 의도적 불이익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생명가치..."세미나
내달 2일 세종회관

한국불교환경교육원과 천주교의 '하늘 땅 물 빛' 등 환경운동을 벌이고 있는 종교·시민단체 실무자들이 참여하고 있

문화재 전문대책위 구성 검토
조계종, 관람료일부 지원등 고려

종단차원의 문화재 전문대책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관람료 징수 사찰의 주지 40명은 지난 11일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성보문화재에 대해 문화재 관리국과의 긴밀한 접촉과 상호 협조를 위해 상설기구로 문화재 전문대책위원회(가칭)를 구

종파간 화합·인류구원 모색

22일 세계불교도우의회 총회 방콕서 개최

제19차 세계불교도우의회(WFB) 및 제10차 세계불교청년회(WFBY) 총회가 11월 22일 태국 방콕 임페리얼 킨스 파크 호텔에서 개막된다.

29일까지 8일간 계속될 이번 총회에는 WFB 1백30개 지부와 WFBY 35개지부 1천2백여명의 대표자가 참가, '불교의 재종파간의 조화점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대표단장인 도문스님(대각사 주지)은 용성스님의 오대실천수행덕목인 참선 건강 기도 불사의 중요성에 대해 입을 열어 예정이던 박동기(WFB 본부대표)회장은 오계파지운종의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대표단은 날로 한국불교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

음을 감안 한국불교의 위상제고와 세계불교속에서 한국불교가 차지하는 비중과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주력할 홍보전을 펼친다.

2년마다 열리는 이번 총회는 WFB 및 WFBY총회 사상 최대의 인원이 참가해 불교의 재종파간이 조화점을 모색, 21세기를 향한 불교의 대인류구원과 자기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며 WFB 및 WFBY의 세대교체에 의한 활성화 방안도 논의된다.

장래문화 주제 세미나
남달당 장단점등 소개

한국불교장래문화연구원(원장 정각)은 지난 19일 부산상

공회의소에서 '한국의 장래문화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에 따라 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묘지공급부족 등 국민생활의 불편요인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키 위해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오홍석교수(동국대 지역환경연구소 소장)가 「예장문화는 환경의 소산이다」를, 동아대 박학길교수가 「공공묘지와 무연묘의 실태와 정리활용방안」, 박옥봉변호사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개정안의 내용과 통과 의 당위성」, 시의회 보사위원인 이운식박사가 「매장과 화장의 장단점」, 경성전문대 정길자교수가 「화장의 의미와 남달당지의 의미」를 각각 발표했다.

이러 21일에는 한국토지행정학회가 주최한 「남달제도 활성화 방안」주제 세미나가 국민연금관리공단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태복 교수가 「한국남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발표했다.

탕화점안·체육관 개관
광주 정광학원

정광학원(이사장 조하주)이 지난 15일 법당후불탱화정안과 체육관 개관을 끝으로 94년도 4대행사를 완료했다.

정광학원은 이날 수산(불갑사조실), 천운(대흥사주지), 지선(백양사주지)스님들 스님 30여명과 동문, 학부모, 교육관계자, 신도들 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승원 법당 후불탱화를 불교전통의식으로 봉안했다.

이러 지난 여름부터 진행한 체육관을 개관했다.

이번에 개관한 체육관은 1백50평규모에 철조형으로 6백여평을 수용할 수 있다.



현대불교 가판대에서도 만나세요

'현대불교'가 고계최초로 가판대에서 판매되고 있다. 지하철을 제외한 서울 시내 전역 가판대에 매주 비치되는 현대불교는 불자들의 신앙에 깊숙이 역할을 하며 포교사로서의 역할도 해내고 있다.

이런분들께 현대불교를 발송양 했습니다.

- ▲ 안병철상병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3리) 1부
- ▲ 국경경활병원 경승실 (송파구 가락분동) 10부
- ▲ 삼성의료원 불교법당 (강남구 일원동 20) 5부
- ▲ 구자형 (전북 장수군 장수읍 733 관리대) 5부
- ▲ 서부전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1부
- ▲ 관성사 (충남 공주시 신안동) 1부
- ▲ 원주시불교지인 (원주시 반곡동) 1부
- ▲ 교도소 군부대 등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직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현대불교를 보냅니다.
- ※ 1부당 1만원
- 보낼곳=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 (02) 737-8881

소년 가장돕기 부산법회 성황

대행스님 설법, 1만여명 동참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한 대행스님의 부산법회가 11월 13일 KBS홀에서 지역불자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매년 한차례씩 부산지역 일 반법회를 가지는 대행스님은 이날 "참인간으로 사는 길"이란 주제로 설법을 통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근근이-주인공에 일체를 놓고 관하는 삶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법회는 설법에 이어 불자들의 질문에 즉석 응답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는데 6명의 질문자가 나서 '가정에 불단을 모시는 문제'를 제기불자의 일상 수행에 관한 질문을 했다.

이날 법회는 부산불교연합회 등 9개 기관이 후원했고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주최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 거둬진 성

금은 전액 부산시에 전달돼 소년소녀 가장돕기에 쓰여진다.

21일간 정진법회
포이동 구룡사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을 발원하며 지난 3년간에 걸쳐 '백고와 법회'를 봉행한 구룡사가 올해는 '21일 수행발심 기도정진법회'를 봉행해 오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시작해 2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법회에는 금강경, 법화경, 육조단경 유마경 등 10가지 경전을 재해, 종법·자광·진오·성본·원산·무진·장·정락·혜남·지안·혜인·정우스님들 모두 11명의 선·경사스님들이 법문을 하고 있다. 법문후에는 108배 대예참도 봉행한다.

탄허대종사님께서 30여년전 불교의 대승적 화엄사상만이 21세기를 지향할 우주시대의 종교로써 국민적 중심사상이라고 사자후 하셨던 이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모시는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본 재단에서는 창립 10주년과 탄허 대종사님의 화엄경 간행 20주년을 기념하여 자광사 3층 대법당에서 신중행화 점안식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대법회를 봉행코자 하오니 무루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11월 20일(음 10.18) 10시

■ 장 소 : 계룡산 자광사

■ 증 명 : 비룡, 석주 대종사

■ 설 법 : 변각성스님

(주제 : 화엄경간행출판의 의의)

정병조박사

(주제 : 현대불교의 진로)

불기 2538년 11월10일

화엄법회대도량

재단 탄허불교문화재단

계룡산 자 광 사

대전직할시 유성구 학하동 649

☎ (042)822-9219~20

☎ (042)822-6472~73

FAX (042)822-8304